

문화

# ‘불법’ 창작의 방향성 제시 “춤 동작은 행선과도 같아”

마목무용단 윤민석 감독

“내가 누구인가를 늘 마음속으로 물었죠. 이렇게 내면을 깊이 있게 관찰하다 보면 제 스스로를 성찰하게 돼요. 이런 제가 부처님 말씀을 만나면서 저와 잘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스님들의 일화나 법문을 찾아 읽다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떨어질 정도로 감동을 받아요. 이제 불교는 제 창작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목무용단 윤민석 감독(47)은 ‘하얀 꼬리’ ‘바르도’ ‘아난아 아난아’ 등을 통해 선(禪)적 정서를 작품으로 승화시켜왔다. 불교를 창작의 모태로 삼았다는 그는 요즘 <관무량수경>을 춤으로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마음으로 춤을 춘다는 의미를 가진 마목무용단을 이끌며 수행에 수행을 거듭하는 윤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재만 남성무용단과 국립국악원 무용단 등에서 활동하던 윤 감독은 어느날 홀연히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 전통무용 창작으로 풀겠다는 의지에서였다.

“한국 무용을 전공했는데 그때 제일 좋아했던 춤이 승무예요. 하지만 전통춤을 창작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서 현대무용을 전공했어요. 힘든 유학시절을 보내면서 만난 것이 바로 승산 스님의 책이예요. 프랑스 문화원에서 승산 스님의 <부처님께 재를 털면>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큰 위안이 됐죠. 그후로 5년 정도는 매일 108배와 좌선을 할만큼 스님의 책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독립무용가로 활동하게 된 그는 다큐 ‘차마고도’를 보고 받은 감동을 ‘하얀꼬리’로 표현해 작품을 올렸고 매우 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승무 무용가 이철진(성근속극장 대표) 씨 역시 그의 작품에서 선의 정신을 보았고 <승



마목무용단 윤민석 감독은 禪적 정서를 작품으로 승화시켜 주목된다.

프랑스 유학시절 승산 스님  
책 읽고 5년간 좌선과 명상  
禪을 창작무로 표현 ‘주목’  
<관무량수경> 공연 계획도

엄경)을 작품으로 만들어볼 것을 권했다. 하지만 엄경은 너무 어려웠고 이를 창작으로 풀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허공에 걸려 있는 현재 그 순간을 무용으로 표현한 ‘바르도’다. 이 작품을 통해 창작적 기반을 쌓은 그는 지난 해 11월 <승엄경>을 ‘아난아 아난아’로 제

작해 발표했다. 수행의 과정을 춤으로 풀어낸 이 작품은 시공간을 초월한 판타지로 깊은 사유의 탐구를 통해 경전을 읽는 듯한 느낌을 표현했다. 이를 위해 대원사에서 단원들과 함께 매달 3천배 기도를 올릴 만큼 그는 정성스럽게 작품을 준비했다고. “입장에서 회향까지 주지 석문 스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셨어요.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20개의 불상을 소품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스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죠. 그런데 연습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많아 결국 불상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스님께서 정말 신경 써주셨는데 많이 미안합니다. 3천배를 하는 동안은 몸을 알아차리게 됐고 육체가 업을 쌓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고비를 넘기면서 마음의 갈등이 멈추고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죠. 이 경험은 제 작품을 완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난아 아난아’는 그에게 아직도 미완성이다. “부처님 말씀을 무용으로 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심오한 경전을 하나의 작품으로 단번에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난아 아난아는 계속 수정을 해 좋은 기회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재 그는 별의별춤 페스티벌 듀엣작품 ‘집감’ (7월 18일~20일)을 준비중에 있으며, 7월 23일부터는 경남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무용 교육도 계획중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관무량수경>의 마지막 관법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연꽃을 관하고 그 안에 나를 찾는 과정을 작품화 할 생각입니다. 저의 감동이 관객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춤 동작은 세포 하나 하나의 움직임 스스로 느끼고 관찰하는 행선과도 같죠. 이 선의 느낌을 춤으로 잘 표현해 관객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bwhs@hyunbul.com

# 관음의 원통이치 일고자 한다면...

이근원통 수행

관음신앙의 중심 도량인 낙산사를 주제로 시를 지으려면 관음신앙과 낙산사의 역사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할 뿐 시적인 의미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시를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낙산사의 역사와 관음신앙에 관련된 상식이 없으면 시구의 깊은 뜻을 알아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아주 깊은 학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김부의(金富儀 1079~1136)의 시 ‘낙산사’를 읽으려면 관음신앙과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일자등림해안고(一自登臨海岸高)  
회두무부구진로(回頭無復舊巖勢)  
욕지대성원통리(欲知大聖圓通理)  
청취산근격노도(聽取山根激怒謫)

처음 오른바다 언덕 높기도 하여라.  
머리 돌리매 다시 목은 티끌 없네.  
대성의 원통한 이치를 알고자 하거든  
산근에 부딪치는 노한 파도 소리 들소.

이근원통이란 소리에 의지해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수행법이다. 인간의 육식(六識) 중 청각에 해당하는 듣는 작용에 집중하여 삼매에 드는 것이다. 의상대사가 낙산사 아래 바위굴에서 이 수행을 통해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전하는데, 그로부터 이근원통 수행이 관음신앙의 중심으로 인식되어 왔다.

김부의가 지은 시의 앞부분은 낙산사의 맑은 기운을 읊은 것이다. 바닷가 높은 언덕에 자리한 낙산사에 이르니 속세의 티끌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맑은 기운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한 가피를 입고 ‘원통한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언덕에 부딪히는 파도소리에 귀를 집중하여 이근원통의 수행을 완성해 보라는 것이다. 의상처럼 제대로 수행해 보라는 뜻일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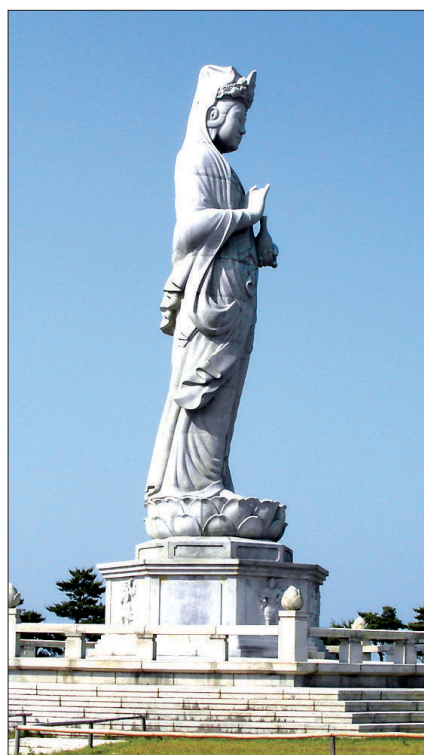
이렇게 낙산사의 신앙적 의미를 시에 담은 경우도 있지만, 승경으로서의 낙산사를 읊은 시들도 많다. 최필(崔 1539~1612)의 문집 <간이집(簡易集)>제8권 ‘동군록(東郡錄)’에 수록된 ‘낙산사(洛山寺)에서 증후로 읊다’라는 작품을 보자.

누관해일석문기(樓觀海日昔聞奇)  
월득중추일세기(月得中秋一歲期)  
차지차시봉고우(此地此時逢苦雨)  
천공정아영동시(天公停我嶺東詩)

누각의 바다 해기막히단 말은 들었다만  
중추의 둥근달 보려면 일 년을 기다려야.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든 선비의 詩心

㉞ 낙산사 ㉞



낙산사는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대표적인 도량이며 해수관음상으로도 유명하다.

바로 이때 이곳에서 모진 비를 만나니  
나의 영동 시를 천공이 방해해 하려나봐.

이 시는 강원도 동쪽지방을 유람한 기록에 포함되어 있다. 낙산사를 찾은 최필은 소문이 자자한 낙산사 일출과 월출을 실컷 즐기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필 그가 낙산사에 당도한 날 ‘모진 비’가 내렸다. 그래서 일출이고 월출이고 다 물 건너 가버린 것이다. 일출과 월출을 보면서 아주 멋진 시도 지을 참이었는데 말이다. 그래도 시재가 뛰어난 최필답게 아쉬움을 하늘이 방해한다고 농치면서 시를 맺는 것이 재미있다.

일출 보며 근심 걱정 내려놓기

윤중(尹拯 1629~1714)의 경우 낙산사에서 일출의 광경을 제대로 본 듯하다. 그의 문집 <명재유고(明齋遺稿)> 제2권에 ‘낙산사(洛山寺)에서 판상 시에 차운하다’라는 시가 있다.

불관도소장(不管道消長)  
하지인락우(何知人樂憂)  
차장호시지(且將孤矢志)  
료부해산유(聊付海山遊)  
수하청화절(首夏淸和節)  
이화낙사루(梨花洛寺樓)  
창명정만리(滄溟正萬里)  
일출채운수(日出彩雲收)

도가 채하거나 오레가거나  
상관할 일 아니거니  
인간사 근심 걱정 무엇 하려 신경 쓰라.  
천하 영영하러던 대장부의 큰 뜻을  
애오라지 산과 바다에 노는 데 부쳐노라.  
초여름 청명하고 화창한 사월에  
배꽃이 흐드러진 낙산사 누각일래,  
푸른 바다 만 리에 아스라한데  
해 돋자 채색 구름 걷어가네.

일체의 세상일을 다 떨쳐버리고 오른 유람길에서 시인은 스스로 자유로운 영혼임을 강조하며 시를 열고 있다. 때는 초여름 청명하고 화창한 날,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의 낙산사 누각, 이 절경만으로도 이미 세간의 모든 근심걱정은 내려놓은 듯 하다. 낙산사 지역은 아주 맛이 좋은 배나무가 재배되어 진상품으로 쓰였는데 일명 ‘낙산배’다. 지금도 낙산사 흥예문 쪽으로 들어가면 낙산배의 시조목을 만날 수 있다. 이 배나무는 2004년 화재에서도 살아남아 더욱 대견스러운 볼거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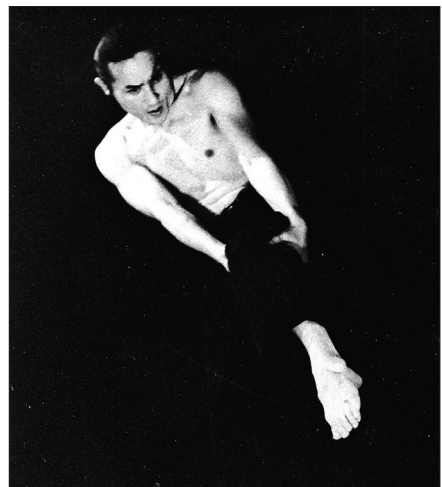
아무튼 윤중은 낙산사 누각에서 일출을 제대로 보았다. 해가 돌아 오르고 채색구름이 걷히는 그 풍경 속에서 선비의 호연지기가 저절로 길러졌을 것이다.

향로산작운반(香 叢 作 族 雲 籠)  
채훈장명척취간(彩 暈 長 明 積 翠 間)  
욕문라가선사숙(欲 問 洛 迦 禪 寺 宿)  
행인요지오봉산(行 人 遙 指 五 峯 山)

향로봉 흠어져서 죽은반이 지어지니  
푸른 빛 쌓인사이 채색 우리노상 밝네.  
낙산사를 물어라 하듯만 목자하니  
길 가는 사람 멀리 오봉산을 가리키네.

허균(許筠 1569~1618)의 시다. 제목은 ‘가는 길에 낙산을 바라보다’이고 <성소부부고(惺所覆稿 蕪)> 제1권 ‘풍악기행(楓嶽紀行)’ 조에 실려 있다.

나그네가 낙산 근처에 당도했을 때 날이 저물었다. 당연히 이름난 낙산사에서 하룻밤 자고자 절이 어디에 있는가 묻는다. 그러자 길 가는 사람은 낙산사가 있는 오봉산을 가리킨다. 어떻게 보면 싱겁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정황의 묘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시 한 수에도 시대의 변혁을 꿈꾸었던 허균의 정신은 들어 있다. 허균에게 해 저문 길은 모순투성이 현실이고 낙산사는 백성이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개혁된 세상이 아니었을까?



2000년도 ‘칼리 그라피티’ 공연.



마목무용단의 ‘아난아 아난아’. <승엄경>을 춤으로 표현해 화제가 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큰우테크주**

“삼베에 귀여우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큰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큰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차브레이크 장치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악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통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이목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이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66권의 저서 출간!**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공공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완전한 불공예식법**  
우리말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종각)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